



제목	The Fall of Heaven: The Pahlavis and the Final Days of Imperial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6. 8. 2.
저자	Andrew Scott Cooper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608
ISBN 또는 ISSN	978-0805098976

내용 요약

이 책은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의 어린 시절부터 1979년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일대기로서 팔레비와 그의 아름다운 부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된 글이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허약하고 가난한 현대 이란에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 시키기를 꿈꾼 국왕이었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거의 40년 동안 국내의 적들과 적대적인 러시아, 약자를 괴롭히는 '친구들'인 영국과 미국의 탐바구니에서 교육 확대, 국가 번영, 여성 해방, 현대적인 의료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적들을 위협, 투옥, 처형하기도 했지만 그 수는 정적들이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그의 치세는 철저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교육받는 중산층의 수를 확대하고 더 번영시켰다. 이후 나타난 더 잔인하고, 더 억압적인 이슬람 정권보다 그의 치세는 덜 억압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된 시기였다. 그가 축출된 것은 잔인한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데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978년 후반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호메이니 세력에 대항하는데 동참하자고 했지만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왕위를 장악,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살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이란을 위해 가장 옳았던 것은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치하에서 고대 문명의 살아남은 흔적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과 근대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것은 호메이니, 그를 추종하는 광신도, 기회주의자, 외국인 혐오자들이 이전의 업적들을 망쳐버린 것이다.